

지역 소식통

청년 학자금 대출 신용 회복에 최대 100만원 지원

정읍시가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지역 청년들의 신용 회복을 위해 '2026년 청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신청일 기준으로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은 청년이 처한 채무 상황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분할 상환 약정을 맺을 때 필요한 초기 납입금을 지원하거나, 새롭게 도입한 성실 상환자 조기 상환 자금을 보태주는 방식이다. 지원 금액은 한 사람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기타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청 청년지원팀(063-539-5619)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QR코드·청자 문양 건물번호판 교체

부안군은 기존의 노후화된 건물번호판을 QR코드 및 부안을 상징하는 청자 문양을 디자인에 적용한 건물번호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이달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체되는 건물번호판에는 QR코드가 함께 부착되어 스마트 폰으로 스캔시 건물의 도로명주소와 위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위치 전달이 가능하고 택배, 배달 서비스 및 방문객의 길찾기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무상 교체 사업은 장기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심하게 훼손되거나 망실, 색바랜 현상 등으로 인해 주소 식별이 불가능해진 시설물을 대상으로 교체된다.

올해는 부안읍, 변산면, 백산면 등을 대상으로 약 2,130개의 노후 건물번호판을 교체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동네점빵’ 농촌 곳곳 누빈다

농·어촌 지역 이동형마트 운영 ‘큰 호응’... 식품사막화 막는 오아시스로 주목

고창군이 지역 농촌마을을 누비며 생필품을 판매하는 이동형 마트인 ‘고창동네점빵’을 운영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창동네점빵은 지난 4월 6일 첫 운영 이후 2개월여간 180여개 마을을 찾아 1900여 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농·어촌 지역의 식품사막화를 막는 오아시스로 주목받고 있다.

고창동네점빵은 생필품과 신선식품 구매가 어려운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판매 서비스다.

읍내 중심가에 상설매장이 있고, 이동형 트럭 2대에 각각 화장지·주방매제, 과자 등 생필품과 계란·두부·콩나물 등 신선·냉동식품을 싣고 각 마을을 돌아다닌다.

인구 5만명 남짓한 고창군은 전체인구의 41.4%(2만774명)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초고령 농어촌도시다.

특히 읍내가 아니고서는 슈퍼나 편의점 등이 없어 기본적인 식품접근성이 떨어지면서 건강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지난 10일 동네점빵이 찾은 고창군 성내면의 한 어르신은 “마을버스를 타면 차 시간도 기다려야 되고 짐도 무거웠는데 이렇게 집 앞에서 화장



지와 세제 등을 살 수 있어 편하고 좋다”고 웃음지었다.

해당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편의점은 5km 이상 떨어져 있다.

하루 네 차례 버스가 다니지만, 배차 간격이 길고 정류장까지 이동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

쌀이나 세제, 음료수처럼 무게가 나가는 물품은 한 번에 사 오기 어렵다. 결국 필요한 물품을 제때 구하지 못하거나, 이웃에게 부탁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고창군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고창군노인복지관 등과 협업해 이동형 푸드트럭 사업을 시작했다.

특히 전북지역에서는 최초로 지역자활센터가 운영을 맡았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사회 서비스와 복지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대한민국 NO.1 ‘고창수박’ 출하

대성농협서 공식 출하식 개최, 전국 소비자 입맛 공략 나서

고 품질과 당도를 자랑하며 여름철 대표 과일로 손꼽히는 ‘고창수박’이 2026년 첫 출하식을 갖고 본격적인 전국 유통망 공략에 나섰다.

고창군(군수 심덕섭)이 11일 대성농협(조합장 박운규)에서 심덕섭 고창군수와 수박농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고창 명품수박 첫 출하식’을 열었다.

올해 고창수박은 대성농협 명품수박 공선출하회에서 연간 20만 덩이, 선운산농협 공선출하회 연간 31만 덩이 등 약 총 51만 덩이가 출하될 예정이다.

고 올해 지리적표시제 고창 명품수박은 현대백화점 및 롯데백화점 식품관에서 판매되고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재배되어 아삭한 식감과 독특한 당도를 자랑한다. 특히 농가들의 숙련된 재배 노하우에 농협의 체계적인 품질 관리로 매년 프리미엄 수박 시장에서 최고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첫선을 보인 고창수박은 대형 유통업체인 롯데마트를 비롯해 서울 가락시장 등 전국의 주요 도매시장으로 공급되어 전국의 소비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여름철 재난대비 재해위험지역 집중 점검

집중호우 선제 대응·시민 안전 최우선... 침수·붕괴 위험 선제 대응으로 안전도시 구축 박차

이학수 정읍시장이 본격적인 장마와 폭염을 앞두고 11일 수성2지구 급경사지 정비 현장과 금봉·동곡 재해 위험 지구를 찾아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확인은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다가오는 재난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재해 예방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살피고 공사장 내 위험 요소를 직접 파악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학수 시장은 먼저 수성2지구 급경사지 정비 현장을 찾아 장마철 대비 안전 대책을 확인했다.

특히 집중호우 시 토사 유출이나 낙석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물 빠짐 시설과 비탈면 보호 장치를 철저히 관리를 지시했다. 공사장 주변 안전 시설물도 함께 점검해 주민 안전을 굳건히 다질 것을 주문했다.

이어 금봉·동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이동해 하천 정비와 다리 재가설 공사 상황을 점검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이 본격적인 장마와 폭염을 앞두고 11일 수성2지구 급경사지 정비 현장과 금봉·동곡 재해 위험 지구를 찾아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빗물이 잘 빠지도록 기능을 꼼꼼히 챙기고 비가 본격적으로 오기 전 주요 공정을 최대한 마무리하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또 공사 과정에서 생기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상시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해 재해 예방 효과를 높일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무더위가 이어지는 시기인 만큼 현장 작업자들의 건강 관리 상태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도 철저히 살피며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3개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사회 상생 협약

부안군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지난 9일 부안에서 사회적협동조합(임병록 이사장)과 백산농두팍사회적협동조합(박천호이사장), 변산바람꽃사회적협동조합(김종철이사장) 등 관내 3개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사회 상생 및 사업협력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안에서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부안군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후원기관으로서 역할을 맡아 개최되었으며, 협약에 참여한 세 조합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 △사회적 가치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 뜻을

모았다. 부안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은 병행동행서비스 사업, 백산농두팍사회적협동조합은 농촌 주민생활돌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변산바람꽃사회적협동조합은 어촌 체험 및 관광사업을 추진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가족센터,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 선정

정읍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도비 16억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낡은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탄소 저감형 건축물로 전환하는 국책 사업이다.

시는 하나의 대지 안에 있는 여러 노후 건축물을 하나로 묶어 동시에 지

원하는 ‘군집형 사업’ 부문에 지원해 정읍시가족센터 1동과 2동이 대상지로 뽑혔다. 총사업비는 국비 14억 5000만원, 도비 1억 2000만원, 시비 5억 3000만원 등 총 21억원 규모다.

시는 올 연말까지 세부 계획 수립을 비롯한 사전 절차를 모두 마치고 오는 2027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